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통합 부결

진보의 가치와 단결을 지켜내다

::대학생다함께

9월 25일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과의 통합을 결정하는 민주노동당 당대회(이하 당대회)가 있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당권파 지도부는 지난 몇 달 동안 진보의 분열을 감수하면서 참여당과의 통합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25일 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표결로 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이 결국 부결됐다.

올바른 진보대통합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맞서 진보가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과 억압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단결해야 한다. 이런 단결의 염원을 담아 2009년부터 진보대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는 진보대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한미FTA를 찬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진보’라고 하기 어려운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해왔다. 이는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고, 오히려 진보를 분열시키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당대회를 앞두고 노동조합·진보단체 활동가·학생회장들의 통합 반대 입장과 성명서 발표가 빗발쳤고, 당대회 3일 전에는 권영길·강기갑·천영세 민주노동당 전 당대표들이 “진보

의 반을 버리고 갈 수 없다”며 통합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당대회 바로 전날 민주노총 중집회의 결과도 “참여당은 선통합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승리

결국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참여당과의 통합은 부결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당권파 지도부는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안팎의 비판을 무릅쓰고 진보대통합 자체를 파탄내면서까지 참여당과의 통합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이런 무리한 밀어붙이기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이는 선거적 실리를 위한 무원칙한 통합을 반대하고, 진보의 가치와 단결을 지켜낸 사람들의 승리다.

현재 참여당에서 진행하기 시작했던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위한 당원 총투표도 중단됐다. 당분간 진보정당-참여당 통합은 시도되기 힘들 것이다. 잘못된 방향을 패권적으로 추진해 온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다.

반면 당대회 결정을 디딤돌 삼아 그동안 좌초 위기에 빠졌던 진보신당 통합파와 다양한 진보세력 간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것은 노동자 단결과 투쟁에 도움이 되는 진보대통합을 염원해 온 수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매우 기쁘고 힘이 나는 소식일 것이다.